

또 멈춰선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논의

광주시교육청 타·군과 형평성 이유 미온적...사실상 중단 전남 일부 지자체 '학교 선택권 부여·인적 교류 확대 긍정적'

광주와 인접한 전남의 일부 시·군의 학군을 묶는 공동학군제 도입 논의가 또 멈춰 섰다.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25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화순군과 전남도교육청이 공동학군제 추진 합의로 급물살을 탔던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논의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중단됐다.

공동학군제는 광주가 광역시로 격상해 전남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입생 정원 등

균형을 이룰 때까지 전남 중학생의 광주 진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됐다. 이후 전남지역 학생들이 광주로 흡수·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1993년에 중단됐으나, 화순, 담양, 나주, 장성 등 광주 인근 전남 시·군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도 부활 논의가 이어져 왔다.

명문고교 육성에 힘쓰고 있는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선 광주지역 우수 중학생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 학군제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전남에 거주하면서 광주지역 고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중학생에게도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공동학군제를 희망하는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화순의 경우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내놓고, 교육예산으로 6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으며 공동학군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학군제 시행의 키를 쥐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와 인접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등 지자체를 비롯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

도교육청과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광주시교육청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화순 등 일부 시·도에서 공동학군제 협의를 요청했으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괄적 협의 없이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간 공동학군제가 도입되면 학생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광주·전남의 인적 교류 확대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해질 19:51 달뜨기 00:58 달집 13:12

첫 장맛비
아침에 남해안부터 비 시작돼 차차 전지역으로 확대 되겠다.

광주	가뭇거리고비	19/26	보성	가뭇거리고비	17/23
목포	가뭇거리고비	20/24	순천	가뭇거리고비	19/26
여수	가뭇거리고비	20/23	영광	가뭇거리고비	18/25
나주	가뭇거리고비	18/26	진도	가뭇거리고비	18/24
완도	가뭇거리고비	19/23	전주	차차흐려져비	19/28
구례	가뭇거리고비	17/26	군산	차차흐려져비	19/28
강진	가뭇거리고비	19/24	남원	비	18/27
해남	가뭇거리고비	18/24	흑산도	가뭇거리고비	19/23
장성	가뭇거리고비	18/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남동~동	0.5~1.0	
남해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동남~동	1.0~2.5
	면바다(서)	동남~동	1.0~2.5	남동~남	1.0~2.5

◇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48 13:50	07:55 20:35
여수	간조	만조
	09:39 21:35	02:54 15:52

◇ 주간 날씨

27(목)	28(금)	29(토)	30(일)	7/1(월)	2(화)	3(수)
☁	☁	☁	☁	☁	☁	☁
21/28	21/28	21/26	21/27	21/28	21/28	22/29

혹서기 노인 체험형 영양교육 광주 남구, 경로당 6곳 대상

광주시 남구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경로당 6곳을 대상으로 혹서기 노인 체험형 영양교육을 진행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6~28일까지 효덕동 노대 경로당과 진월동 진제 경로당, 서리아파트 경로당에서 무더위 대비 영양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는 남구보건소 소속 영양사와 현장 실습을 나온 조선대 식품영양학과 4학년 학생들이 짝을 이뤄 영양 관리 등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교육은 무더위 시기 올바른 물 섭취 방법과 여름철 안전한 식품 보관법, 식중독 예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는 주월동 통합 거점 경로당을 비롯해 진월동 신흥 경로당, 봉선2동 대하 경로당에서 2차 영양교육이 진행된다. /김용희 기자 kimyh@



벽화 그리는 조선대 학생 봉사팀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학과 김용안 교수와 학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벽화 봉사팀이 최근 광주시 서구 화정1동 내방경로당 담벼락에 산뜻한 벽화를 그리고 있다. 경로당 어르신과 주민들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 내년 각각 77명·602명 교사 뽑는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2020학년도 공립교사를 각각 77명, 602명씩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25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2020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유치원 9명과 초등 10명, 특수교사(유·초) 6명 등 총 25명을 선발한다.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국어 교과를 포함한 23개 과목 5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전남에선 유치원 58명과 초등 220명, 특수교사(유·초) 15명을 선발한다. 중등·특수·비교과 교사는 23개 과목 309명이다.

이들 광주와 전남이 각각 145명, 713명을 선발했던 2019학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인원이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의 결과라는 게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예정 과목·인원을 안내한 것으로 최종 세부 사항은 유·초·특수 9월 11일, 중등·특수 10월 11일 시험 시행계획 공고로 통해 발표된다. 제1차 필기 시험일은 유·초·특수 11월 9일, 중등·특수와 비교과 교사는 11월 23일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업혁신·지역민과 상생하는 교육자치 실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수업혁신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 지역민과 상생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소멸 시대에 전남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 내에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수업혁신을 이뤄내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교사를 교실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장 교육감 취임 후 지난 1년간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10개의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또 1811개팀, 1만2937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수업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학교지원센터 등을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교육감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남이 앞서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또 차별 없는 교육 복지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남지역 전체 학교의 절반에 이르는 작은 학교를 되살려 전남교육에 희망을 심어놓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원도심학교, 농촌 작은학교, 섬학교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전남교육에 희망을 심어놓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광주노동청, 추락사고 위험 건설현장 127곳 적발

광주고용노동청이 지난 5월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건설 현장 127곳을 점검한 결과 127곳(73.8%)이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공사비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172곳 중 1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이중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121곳 현장 책임자 등을 사법 처

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광주의 한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현장은 건물 외벽 작업용 철 구조물에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작업 중지 3일 처분과 함께 사법 처리를 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의 한 병원 신축현장도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작업중지와 사법 처리 처분을 받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